

CHINA

# 중국 콘텐츠 산업동향

CONTENTS INDUSTRY TREND OF CHINA

한국콘텐츠진흥원  
중국사무소



**kocca**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 주간 심층이슈

## 『중국 영화산업 현황 및 한국 영화산업의 중국진출』

### ◎ 작성 취지

- 중국의 영화산업 현황 및 한국 영화산업의 중국진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 중국의 영화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살펴보고 한국영화산업의 중국진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한국 콘텐츠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출처 : 중앙희극학원 주현기 연구원

### ◎ 작성 순서

1. 「중국 영화산업 발전 현황」
2. 「중국 영화시장과 한국영화」
3. 「넥스트 비주얼 스튜디오 김대훈 대표 인터뷰」
4. 「북경성세화예전영투자관리유한공사(北京盛世华锐电影投资管理有限公司) 후적(侯迪) 인터뷰」

## 1. 중국 영화산업 발전 현황

### ■ 중국 영화산업 발전 현황

- 2010년 중국 영화시장은 ‘연간 매표 수입 100억 위안(한화 1조 7천억 상당)’의 위업을 달성함. 특히 <아바타>의 경우, 13억 위안의 매표 수입으로 중국 영화시장 역대 흥행 순위 1위에 오름. <아바타>의 해외 매표 수입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중국이었음. 2010년 개봉한 영화 중 <인셉션>, <익스펜더블>, <페르시아의 왕자 : 시간의 모래>의 해외수입 1위 역시 중국이 차지함.

■ 표 1 ■ 2011년까지 중국 영화시장 역대 흥행 순위 TOP20

	제목	개봉연도	흥행수입 (억 위안)	제작국가	비고
1	아바타	2010	13.78	미국	
2	트랜스포머3	2011	7.70	미국	상영 중
3	양자탄비(让子弹飞)	2010	6.64	중국	
4	대지진(唐山大地震)	2010	6.47	중국	
5	쿵푸팬더2	2011	6.08	미국	
6	쉬즈 더 원2(非诚勿扰2)	2010	4.7	중국	
7	2012	2009	4.6	미국	
8	캐리비안의 해적4	2011	4.63	미국	
9	인셉션	2010	4.57	미국	
10	트랜스포머2	2009	4.55	미국	
11	건국대업(建国大业)	2009	4.20	중국	
12	건당위업(建党伟业)	2011	3.69	중국	상영 중
13	타이타닉	1998	3.59	미국	
14	쉬즈 더 원(非诚勿扰)	2008	3.25	중국	
15	적벽 상(赤壁上)	2008	3.21	중국	
16	적인걸(狄仁杰之通天帝国)	2010	2.95	중국	
17	8인 최후의 결사단 (十月围城)	2009	2.93	중국	
18	황후화(满城尽带黄金甲)	2006	2.91	중국	
19	트랜스포머	2007	2.82	미국	
20	삼창박안량기 (三枪拍案惊奇)	2009	2.61	중국	

출처 : 태평양영화넷 太平洋电影网 <http://www.cinema.com.cn/>

이은엔터테인먼트 리서치 艺恩娱乐咨询 <http://www.entgroup.cn/>

- 이렇듯 중국은 어느새 할리우드가 주목하는 주요 영화시장으로 부상함. 2005년의 연간 매표 수입이 20억 위안에 불과했음을 상기해보면 그야말로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임. 황금기를 맞이한 중국의 영화산업을 이해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2011년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음.

#### ■ 1993년부터 2000년까지 : 개혁개방에 따른 변화의 시작

- 1992년, 중국은 대대적인 개혁개방을 통해 시장경제 시대로 편입함. 닫혀있던 문이 열리면서 중국사회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영화산업 역시 예외일 수는 없었음. 계획경제 시스템 속의 중국 영화산업은 제작에서 상영, 투자의 회수까지 모두 국가 주도로 이루어짐. 제작되는 영화는 주선율(主旋律) 영화가 주를 이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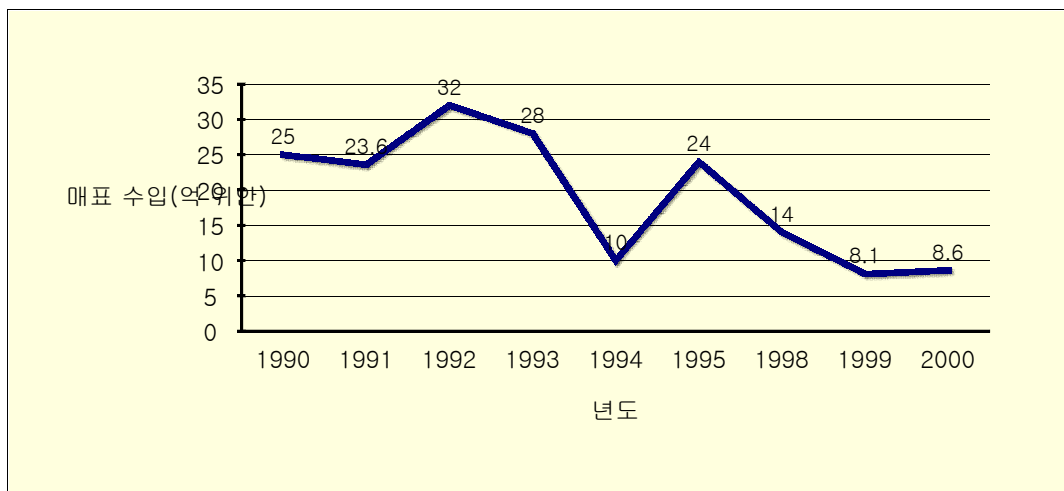
었고, 수입되는 해외영화 역시 공산권 국가의 영화뿐이었음.

- 개방 이후 국가광과전영전시총국(国家广播电影电视总局: 이하 광전총국)은 1993년 1월, 이른바 3호 문건이라 불리는 <현재 영화업계 개혁의 심화에 대한 약간의 의견(关于当前深化电影行业机制改革的若干意见)>을 발표함. 이 의견은 국영기관에 의해 독점화된 제작-배급-상영의 통일된 체계에 민영기업의 참여 공간을 마련하여 산업 단위의 다양성을 꾀하고자 하는 시도로 간주됨.

■ 그림 1 ■ 1990년-2000년 연간 극장 매표 수입 변화 추이

※1996년, 1997년

데이터 없음



- TV의 유행과 개혁개방의 여파로 극장 매표 수입이 급감했던 1994년 말, 광전총국 영화국은 매년 10편의 우수 해외 영화를 수입할 것을 결정함. 이 결정에 따라 1995년에 처음으로 10편의 수입 분장 영화가 상영됨.
- 10편 중 3편은 <홍번구(红番区)> 등의 홍콩영화<sup>2)</sup>였고, 나머지 7편은 <라이언킹>, <워터월드>, <미션 임파서블> 등의 할리우드 영화가 차지함. 공산주의 선전 영화가 아닌 수입 영화는 중국 영화시장에 문화적, 경제적 충격을 가져옴. 수입 분장 영화들이 인기를 얻으면서, 침체되었던 시장이 잠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임. 하지만 관객들이 수입 영화에만 몰리면서 중국영화의 위기를 가져옴.

1) 주선율(主旋律) 영화 : 정치 선전 영화. 이운보다는 국민 교화를 목적으로 국가의 주도로 제작되었다. 상영 시에는 국영기업, 국가기관, 학교 등에 단체표를 팔아 관람하도록 했다. 2009년 건국 60주년을 기념하여 개봉한 <건국대업>이나 2011년 공산당 90주년을 기념하여 제작된 <건당위업>과도 같은 영화가 대표적이다.  
 2) 세 편 모두 높은 지명도를 가진 성룡(成龙)의 영화였다.

- 1996년에는 제작, 심의, 수입, 배급, 상영 등 각 부분별 활동규범을 정리한 <영화 관리조례(电影管理条例)>가 발표됨.
- 1998년, <타이타닉>이 중국 영화시장을 강타. <타이타닉>의 매표 수입은 3.2억 위안으로, 단 한 편의 영화가 1998년 연간 흥행 수입 14억 위안의 1/5을 차지함. <타이타닉>의 성공은 중국 영화시장의 잠재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중국영화인들을 자극하는 계기가 됨.
- 1999년에는 미국이 세르비아 주재 중국 대사관을 폭격한 사건으로 인해 대륙에서 미국영화의 상영이 전면 금지됨. 때문에 영화관에서는 주선율 영화만 상영하였는데, 이전과 달리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함. 10월에 다시 미국영화를 상영하면서 회복세에 들긴 했지만, 이 일로 인해 1999년 연간 매표 수익은 8억 위안으로 줄어들었음. 통계에 따르면 1999년 제작된 영화는 102편이었고, 관객수는 4.5억 명이었음.

#### ■ 2001년부터 2009년까지 : 비상하는 중국 영화산업

- 2001년 12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으로 가입하면서 중국 영화산업 역시 큰 변화를 겪게 됨. 가입의정서에 명시된 영화산업에 대한 합의 내용은 두 가지로 다음과 같음.
- 첫 번째는 “10편이었던 수입 분장제(分账制) 영화<sup>3)</sup>의 개봉편수를 우선 20편까지 확대하고, 3년 이내에는 50편 수준으로 늘려야한다.” 이 조항에 따라 수입 분장제 영화의 개봉이 1년에 20편으로 확대되었지만, 그 이후로 2011년인 지금까지도 20편에서 더 이상 확대되지는 않고 있음.
- 두 번째 조항은 “외국 자본이 극장 소유, 운영권을 가질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 “ 단, 외국기업의 지분이 전체의 49%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음.
- WTO 가입 이후로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지면서 중국 영화산업의 재정비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에 기존의 국유기업 중심의 시스템을 탈피, 산업의 영역을 민간 기업으로 확대하게 됨.
- 먼저 2001년에는 중국전영그룹(中国电影集团公司)<sup>4)</sup> 배급공사가 가지고 있던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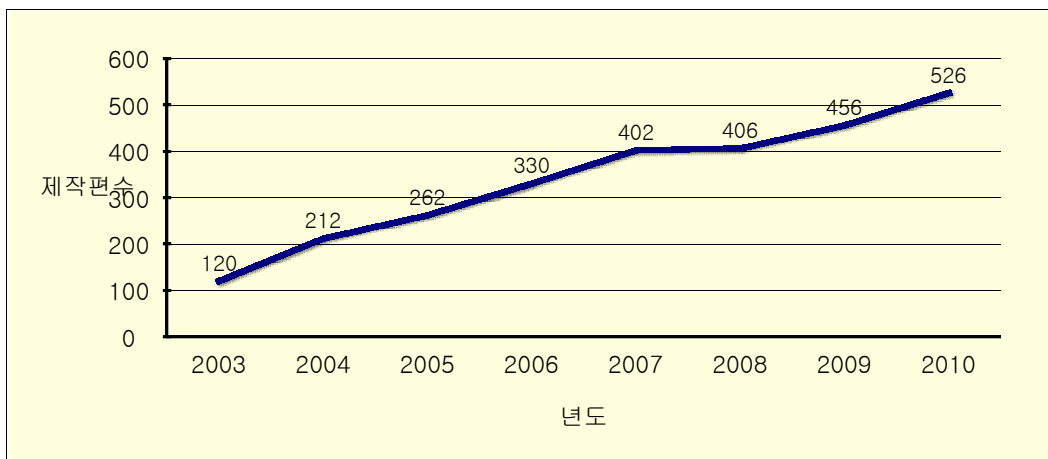
3) 분장제(分账制) : 영화의 배급에 있어 배급사에게 배급을 위탁하는 형식. 자세한 사항은 본 보고서 '2-1) 중국에서 개봉한 한국영화의 흥행 성적' 부분을 참조

4) 중국전영그룹(中国电影集团公司) : 광전총국 영화국 산하의 국영회사로 줄여서 중영(中影)이라 부른다. 중국영

영화 배급 독점권을 포기하고, 배급사가 일정 요건을 갖췄다면 수입영화의 배급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2002년 6월에는 원선(院线)이 대대적으로 개혁됨. 원선이란, 영화관을 관리하는 회사로 일종의 배급망이라 할 수 있음. 예전에는 필름 프린트를 각 성의 성(省) 공사에 보내고, 성 공사는 다시 성에서 1차 도시, 2차 도시로 보내는 배급구조였는데, 이 성 공사가 원선으로 변신한 것임. 원선 아래에는 일정 수의 영화관들이 소속되어 있으며, 원선은 배급사와 함께 소속된 영화관의 상영 스케줄을 관리 조정함. 영화관들은 3년마다 원선과 계약을 갱신해야 함.
- 2003년 미국의 반독점 시위로 인해, 중국전영그룹과 분리될 별도의 배급회사인 화하전영발행유한책임공사(华夏电影发行有限责任公司:이하 화하발행)를 설립함. 화하발행의 설립 이후, 중국전영그룹이 주로 수입을 진행하고, 화하배급이 배급을 담당하게 됨. 이듬해인 2004년 11월에는 20편의 분장제 영화 외에도 매년 30편의 매단제(买断制)<sup>5)</sup>영화의 수입을 허가함.
- 이렇게 점차 시장이 개방되면서 중국의 영화인들과 관객 모두 영화를 보는 눈높이가 올라가기 시작함. 2000년에 개봉하여 2.5억 위안의 수입을 올린 장에모(张艺谋)감독의 <영웅>은 중국식 대작 영화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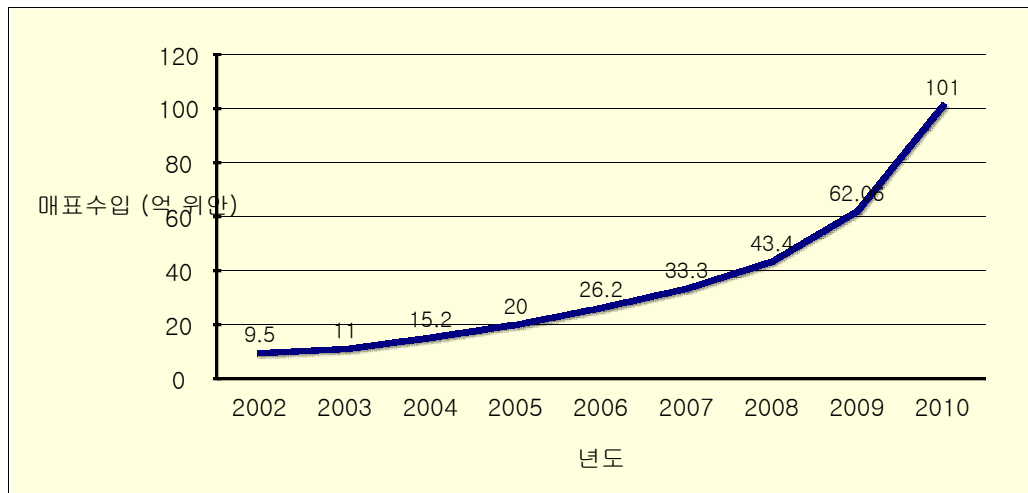
■ 그림 2 ■ 2002-2010년 중국영화 생산량



화 제작생산량과 배급편수가 가장 많은 회사이다. 현재 주식시장 상장을 준비하며 지속적으로 조직 개편을 진행중이다. 중영이 제작한 주요 영화로는 <건당위업>, <대지진>, <적벽 상/하>, <남경! 남경!(南京!南京!)>, 등이 있다.

5) 매단제(买断制)<sup>1)</sup>: 영화의 배급에 있어 배급권을 판매하는 형식이다. 자세한 사항은 본 보고서 '2-1) 중국에서 개봉한 한국영화의 흥행 성적' 부분을 참조

■ 그림 3 ■ 2002년-2010년 연간 극장 매표수입 변화 추이



- 새로운 변화에 힘입어 중국영화 연간 매표 수입은 20%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하며 가파르게 성장. 제작편수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함.
- 2008년에는 베이징올림픽 개최의 영향으로 중국 영화산업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인 해적판 시장이 일시적으로 타격을 받게 됨.
- 정치 선전 도구에 불과했던 영화가 중요한 산업 경제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중국 정부는 영화산업을 중점 문화산업으로 육성하기로 결정. 먼저 2009년 7월, 국무원이 <문화산업진흥계획(文化产业振兴规划)>을 발표하여 문화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고 밝힌데 이어, 2010년 1월에는 <영화산업번영발전촉진을 위한 지도의견(关于促进电影产业繁荣发展的指导意见)> : 이하 <지도의견>을 통해 영화강국으로의 전환을 모색한다는 포부를 밝힘. 이 지도의견은 2015년까지 7가지 구체적인 목표와 10개의 영화 시설 조성을 언급하고 있음.
- 한편 2009년 연간 매표 수입은 62.06억 위안으로 2008년 43.41억 위안에 비해 43%성장함.

## ■ 2010년 중국 영화산업 결산

### ○ 시장규모 및 제작

- 중국 영화시장의 수입의 90%는 극장 매표 수입이 차지함. 2010년 중국의 연간 매표 수입은 101.72억 위안으로, 2009년도의 62.06억에 비해 63.9%가 증가함. 100

억 위안 중 중국영화의 수입은 57.34억 위안이고, 해외영화는 수입은 44.38억을 차지하고 있음.

표 2 | 2010년 중국 영화산업 연간 박스오피스 순위

(기간 : 2010.1.1-12.31 / 단위 : 억

위안)

	영화제목	흥행수입	참고
1	아바타	13.78	
2	대지진(唐山大地震)	6.73	
3	양자탄비(让子弹飞)	4.79	최종 수입 65405만 위안
4	인셉션	4.42	
5	쉬즈 더 원2(非诚勿扰2)	3.34	최종 수입 48200만 위안
6	적인걸(狄仁杰之通天帝国)	2.92	
7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2.26	
8	익스펜더블	2.18	
9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1	2.05	
10	엽문(叶问2 : 宗师传奇)	2.34	

출처 : 이은엔터테인먼트 리서치 艺恩娱乐咨询 <http://www.entgroup.cn/>

- 매표 수입은 크게 증가했지만, 연간 관객수는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음. 2009년의 추정 연간 관객수는 20.18억 명이고, 2010년에는 22.5억 명으로 매표 수입만큼 큰 차이가 나지 않음. 3D영화와 IMAX영화가 많아지면서 티켓가격이 상승하여, 매표 수입이 증가한 탓임. <아바타>의 평균 티켓 가격은 70위안으로 기본 티켓 가격의 두 배에 가까움. 중국 최초의 IMAX 영화 <대지진> 역시 최저 티켓 가격이 일반 티켓보다 5위안 정도 비싼 35위안이었음.
- 업계 내에서도 100만 위안의 실체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이 분분했음. 현재 중국에는 공식적인 박스오피스 집계 시스템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제작사와 배급사의 공식적인 발표에 의지한 매표 수입 집계는 부풀려지거나 축소될 여지가 많음. 광전총국이 발표한 수치라도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음.
- 시장의 양극화 현상 또한 심각함. 매표수입 1, 2위를 차지한 <아바타>와 <당산대지진>의 수입이 연간 매표 수입의 1/5을 차지함. 매표 수입 상위 10위권 내의 영화들의 수입을 합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짐. 단 10편의 영화가 75%의 매표 수입을 차지하고 있음.



- 2010년 한 해 동안 중국에서는 526편의 장편 상업영화가 제작되었음.<sup>6)</sup> 이는 2009년의 456편보다 15%가 증가한 수치임. 이로써 중국은 미국과 인도에 이어 전 세계 영화 생산량 3위의 국가로 등극함. 이들 영화 중 도시의 주요 원선에 상영된 영화는 260여 편으로, 월 평균 20여 편의 중국 영화가 상영된 셈임.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영화 관련 매체들은 이들 중 80%가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했다고 보도함. 이는 곧 중국의 영화 시장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함.
- 중국 영화시장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해외협작이 점점 활발해 지고 있음.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2010년 12월 말까지 중국영화합작공사(中国电影合拍公司)에 합작(合拍) 또는 협작(协拍) 영화로 입항 신청을 한 영화가 2009년보다 18편이 증가한 95편인 것으로 나타났음.
- 이 중 입항한 영화는 63편이며, 심의에 통과한 영화는 41편. 영국, 독일, 폴란드, 호주,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 외에도 홍콩, 대만이 중국과의 협작을 진행하면서, 더욱 다국적화 된 경향을 보임. 특히 7월 23일에는 싱가포르와 <중국국가광전총국과 싱가포르 신문통신예술부의 합작영화제작의 관한 협의>를 맺으면서, 양국 사이의 협작 가능성을 높였음.

## ○ 배급

표 3 | 2010년 중국 주요 배급사의 배급현황

기업	배급편수	수입(위안)	주요배급영화
중영발행공사	174편	61억	<Go! Lala Go!>, <베스트키드>, <산사나무 아래>, <양자탄비> <제1서기>, <대병소장>
화하발행	96편	23. 5억	<산사나무 아래>, <Lost On Journey> <조씨고아>, <아바타>, <인셉션>
화의형제	10편	15.5억	<당산대지진>, <적인걸>, <쉬즈 더 원2> <서풍열(西风烈)>, <선인(线人)>
상해동방	11편	5.7억 위안	<조씨고아>, <시양양과 후이타이랑2>, <용풍점(龙凤店)>
폴리보나 광선영업 (光线影业)	13편 7편	5억 3.32억	<당백호점추향2(唐伯虎点秋香2)>, <시양양과 후이타이랑2>, <대소강호>
샤오마편팅 (小马奔腾)	2편	2억	<정무풍운, 진진> <월광보함(越光宝盒)>, <검우(剑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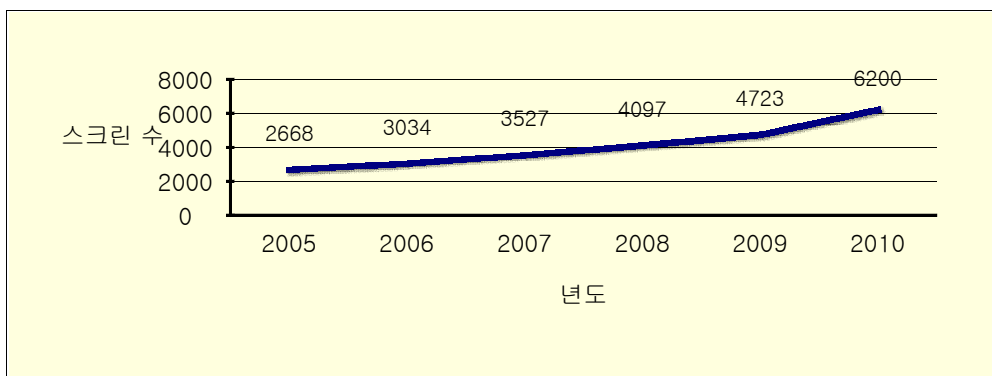
6) 526편의 장편 영화 외에도 애니메이션 16편, 다큐멘터리 16편, 과학교육영화 54편, TV영화채널이 제작한 디지털 영화 100편이 제작되었다.

- 2010년 중국 영화시장의 배급 상황을 살펴보면, 여전히 중국전영그룹 발행공사(이하 중영발행공사)와 화하전영발행공사의 배급편수가 각각 174편과 96편으로 배급 분야의 강자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음. 중영발행공사가 배급한 중국 영화는 139편으로 39억 위안의 배급 수입을 올렸고, 수입영화의 경우 35편을 배급하여 22억 위안의 수입을 올림.
- 민간 기업으로는 화의형제영업투자유한공사(华谊兄弟影业投资有限公司 : 이하 화의형제)가 <당산대지진>과 <취즈 더 원2>의 성공에 힘입어 15.5억 위안의 배급 수입을 올림. 5억 위안의 배급 수입을 올린 폴리보나전영발행유한공사(保利博纳电影发行有限公司)는 2010년 12월 9일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중국영화사 중 최초로 나스닥에 진출한 회사가 됨.

## ○ 상영

- 2010년까지 중국 전역의 스크린 수는 6200여개. 중국정부의 지지와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로, 2010년 한 해에만 313개의 영화관과 1533개의 스크린이 새롭게 생겨남. 매일 평균 4.2개의 스크린이 증가한 셈임.

┃ 그림 4 ┃ 2005-2010년 중국의 스크린 수



- 상영에서 3D영화와 IMAX 영화의 유행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아바타>의 성공 이후, 중국영화계에는 3D영화 붐이 일어남. 3D로 개봉했던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타이탄>, <레지던트 이블4>가 모두 1억 위안 이상의 수입을 올림. <대지진>은 중국 최초의 IMAX 영화로 주목을 받음. 현재 중국은 전국에 19개의 IMAX 상영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
- 현재 중국 극장가에서는 디지털 상영이 필름 상영을 빠른 속도로 대체하고 있

음. 중국의 6200여개의 스크린 중 디지털 스크린은 4000여개로 전체 비율의 60%를 차지하고 있음. 그리고 이 4000여 개의 디지털 스크린에서 2000여 개는 3D영화 상영이 가능함. 2008년에 3D상영이 가능했던 스크린이 86개에 불과했던 것을 생각하면 비약적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필름 프린트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중국의 넓은 영토를 한 번에 커버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때문에 일반적으로 1선 도시-2선 도시-3선 도시 순의 순회상영이 관례였으나 디지털 상영을 통해 와이드 릴리즈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순회상영의 틈새에서 수익을 내던 해적판 시장에도 타격을 주게 됨.

○ 원선

▣ 표 4 ▣ 2010년 중국 5대 원선 현황

(기간 : 2010.1.1-12.31 / 단위 : 억 위안)

	원선	흥행수입	성장률	2010년 상영영화			영화관수	스크린수
				합계	중국영화	수입영화		
1	북경만달 (北京万达)	14.02	68.1	172	116	56	70	600
2	중영성미 (中影星美)	12.13	53.0	192	132	60	131	640
3	상해연합 (上海联合)	10.71	56.8	219	152	67	153	599
4	신천중영남방 (深圳中影南方)	9.50	58.3	204	173	67	116	490
5	북경신영련 (北京新影联)	7.98	131.0	208	149	59	100	500

- 원선에서는 만달전영원선주식유한공사(万达电影院线股份有限公司 : 이하 만달원선)가 14.02억 위안의 수입을 올리며, 역대 원선 수입 중 최고를 기록함. 2005년 원선사업을 시작한 만달원선은 처음 5개의 영화관에서 출발하여 꾸준히 규모를 키워 현재는 70개의 영화관과 600여개의 스크린을 보유한 대형 원선으로 성장하였음. 중국에서 3D상영관과 IMAX상영관을 가장 많이 보유한 원선이기도 함.

2. 중국 영화시장과 한국영화

▣ 중국에서 개봉한 한국영화의 흥행 성적

- 2010년 원선에 정식 상영된 70편의 수입영화 중 ‘한국영화’의 타이틀을 가지

고 개봉한 영화는 <7급 공무원> 단 한 편뿐이었음. 비수기인 3월에 <특공강당(特工强档)>이라는 제목으로 개봉하여, 17일 동안 약 1400만 위안의 수입을 올림. 주연배우인 김하늘과 강지환이 드라마를 통해 중국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를 가진 배우라는 점과 로맨스, 코미디, 액션이 결합된 신선한 장르라는 점이 주요 흥행 포인트로 작용함.

- 영화의 배급사인 화하발행으로써는 반길 만한 성적이지만, ‘100억 위안 중 1400만 위안’은 중국 극장가에서 한국영화의 존재감은 거의 없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음.

표 5 | 2007-2010년 중국영화시장에 정식 개봉한 한국영화의 매표 수입

상영시기	제목	중문제목	박스오피스(RMB)	배급형식
2007.3.5	괴물	汉江怪物	1,420만	매단
2007	미녀는 괴로워	丑女大翻身	1,550만	매단
2008.5.13	디워	龙之战	2,960만	매단
2009.8.25	해운대	海云台	855만	분장
2009.10.9	과속스캔들	非常主播(超速绯闻)	1,362만	매단
2010.3.5	7급공무원	特工强档	1,420만	매단

### ■ 한국영화의 중국시장 진출 장애 요소

- 위의 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에서 한국영화가 흥행에 크게 성공한 예를 찾기 어려움. 한국영화의 중국시장 진출을 막는 요소로 크게 세 가지가 있음.

### ○ 수입쿼터

- 중국정부는 자국 영화산업 보호의 일환으로, 외화의 수입 편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앞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입형식은 크게 분장제와 매단제로 나뉨. 쉽게 말해 분장제는 배급사에게 배급을 위탁하는 형식이고, 매단제는 배급권을 판매하는 형식.
- 분장제의 경우 상영 이후 발생하는 수익을 말 그대로 분장(分帳), 즉 나눠가질 수 있지만, 매단제를 통해 배급할 경우 모든 수익은 배급사가 갖게 됨. 분장제 영화를 수입, 배급할 수 있는 곳은 중국전영그룹과 화하발행뿐임.

- 분장제 영화의 쿼터는 1년에 20여 편이며, 대부분 할리우드 대작 영화로 채워짐. 매단체 영화의 경우 문화교류의 다원화를 위해 여러 국가의 영화를 포함하고 있지만, 국가 당 3편을 넘어서지 않음. 분장제와 매단체를 통틀어서 원선에 정식 상영이 가능한 한국영화는 1년에 최대 3편 정도. 그동안 대부분의 영화들이 매단체 형식으로 개봉해왔으며, <해운대>가 최초로 분장제 개봉을 하여 기대를 모았으나 한국과 달리 좋은 수입을 얻지 못함.

## ○ 검열 시스템

- 중국에는 등급제가 없기 때문에 극장에서 상영되는 모든 영화는 '전체 관람가'가 되어야함. 리안(李安) 감독의 <색, 계>가 중국에서 반토막이 나서 상영된 사실은 잘 알려져 있음.
- 중국의 영화심의는 사전 시나리오 심의와 완성 후의 심의로 두 번에 걸쳐 진행됨. 까다로운 기준의 중국검열을 통과하기란 쉬운 일이 아님. 상황에 따라 심의 기준의 적용정도 역시 상당히 유동적임.
- 예를 들어 중국에서 귀신이 등장하는 공포영화는 개봉할 수 없음.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미신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다만 시대 배경이 먼 과거인 고전 문학작품을 영화화할 경우 귀신이 등장해도 상관없음. 그동안 중국에서 개봉한 한국영화가 로맨틱 코미디와 드라마가 주를 이룬 것도 이러한 맥락이라 볼 수 있음.

### ▣ 표 6 ▣ 중국 영화 심의조례에 따른 심의 기준

- ① 국가통일, 주권의 완전성을 위협하는 내용
- ② 국가의 안정, 명예, 이익을 위협하는 내용
- ③ 민족분열을 조장하는 내용, 민족 단결을 깨는 내용
- ④ 국가기밀 발설의 내용
- ⑤ 부적합한 성의 묘사가 도덕기준을 심히 위반한 음란하고 타락한 내용
- ⑥ 봉건, 미신 등 사회 공공질서를 교란하는 내용
- ⑦ 살인, 폭력의 미화로 인해 법률의 존엄성을 무시한 내용  
범죄, 유발 치안을 교란하는 내용
- ⑧ 타인을 모욕하는 내용
- ⑨ 국가가 금지하는 기타 내용
- ⑩ 생태환경의 파괴하고 희귀동물을 학대하는 내용

- 중국내에서도 등급제에 대한 요구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 루추안(陆川) 감독의

<남경!남경!(南京!南京!)> 중 여성의 전라가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전체관람가가 적절하지 않다는 항의가 있었고, 이는 곧 등급제에 대한 논의로 이어짐.

- <대지진> 상영 당시에 시신의 잔혹한 모습이 보이는 장면으로 같은 논란이 있었음. 하지만 광전총국은 두 영화 모두 교육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 심의를 통과시킴. 몇 년간의 등급제 논란에도 불구하고 광전총국은 당분간 등급제의 실행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고 있음.

## ○ 해적판

- 2010년 중국의 영화 해적판 시장은 400억 위안 규모로 추정되고 있음. 과거 유행하던 불법 DVD에 최근에는 온라인상의 해적판까지 더해져 영화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 중국의 평균 영화 티켓 가격은 30위안으로, 소득수준과 비교할 때 다소 비싼 편임. 때문에 중국의 영화관객들은 “대작 영화는 극장에서 관람하고, 소규모 영화는 DVD나 온라인으로 보는” 습관이 형성됨. 이런 경향 때문에 중국극장가는 할리우드 대작영화와 중국의 대작영화로 양분되었고, 기타 국가의 영화들은 높은 수입을 올리기 힘들게 됨.
- 최근에는 온라인상에서 해적판의 등장속도가 빨라지면서 중국 영화계 또한 골머리를 앓고 있음. <양자탄비>, <쉬즈 더 윈2>, <건당위업>등 중요 대작 영화들은 상영 이틀이 지나면, 디지털 프린트에서 추출한 고화질 해적판을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2010년 4월, 중국영화저작권협회(中国电影著作权协会)가 출범함. ‘중국영화저작권보호협회’를 전신으로 하는 이 협회는 영화작품사용허가를 발부하고 저작권침해행위감시 하는 것을 주요 활동으로 함. 공개적이고 공적인 수단을 통해 저작권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한국영화에까지 그 영향력이 발휘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임.

## ■ 한국 영화의 중국진출 방안

### ○ 한·중 영화 공동제작

- 한국이 중국과 공동 제작한 영화는 중국영화로 인정되어 수입 쿼터를 적용받지

않음.

- 여기서 흔히 말하는 '합작'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음. 중국 영화산업에서 해외와의 공동 작업은 크게 합작(合拍)과 협작(協拍)으로 나뉨. 합작은 공동 투자를 전제로 한 공동 제작을 의미하고, 협작은 중국 측이 노동력, 장소 등 부가적인 사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함. 단순히 중국에서 촬영했다거나, 중국 배우를 기용했다거나, 한국인 스태프가 중국의 영화제작에 참여했다고 해서 합작영화라 부를 수 없음. 최초의 한·중 합작영화로 알려진 김성수 감독의 <무사>는 엄밀히 말해 '합작' 영화가 아닌 '협작'영화임.

■ 표 7 ■ 2005년 이후 한·중  
합작영화목록

제목/중문제목	제작 년도	수입 (위안)	주요 제작사	비고
칠검/七劍	2005	8345만	중국 : 북경자문영시제작유한공사 (北京慈文影視制作有限公司) 한국 : 보람 엔터테인먼트 홍콩 : Film Workshop	김소연 출연
무극/无极	2005	1.7억	중국 : 중국전영그룹 21세기성영시문화교류유한책임공사 (21世紀盛影視文化交流有限責任公) Moonstone Entertainment 한국 : 쇼이스트	
데이지/雛菊	2006	930만	한국 : 아이필름 홍콩 : Basic Pictures	이성재, 전지현 주연
묵공/墨攻	2006	6150만	홍콩 : 교양전영유한공사 (骄阳電影有限公司) 중국 : 화의형제 일본 : Fortissimo Films Comstock 한국 : 보람엔터테인먼트	안성기, 최시원 출연
삼국지:용의 눈물 /三國之見龍卸甲	2008	7200만	중국 : 보나영업그룹 중국전영그룹 한국 : 태원엔터테인먼트 홍콩 : Visualizer Film Productions	넥스트 비주얼 VFX 참여
소피의 연애메뉴얼 /非常完美	2009	1억	중국 : 완미세계영상문화유한공사 (完美世界影視文化有限公司) 화의형제 한국 : CJ Entertainment	소지섭 주연
전처와 연애하기 跟我的前妻谈恋 爱	2010	470만	한국 : 나비픽처스 홍콩 : Sundream Motion Pictures 중국 : 폴리보나	

- 지난 2003년 홍콩은 중국과 <긴밀한 경제관계를 위한 협정(关于建立更紧密经贸关系的安排,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의 체결하면서, 홍콩영화는 외화 쿼터에 포함되지 않고, 사전 심의만 받으면 본토 내에서 중국영화의 대우를 받게 됨. 대만 역시 2010년 9월 <대만-중국 간 경제협력기본협정(兩岸的綜合性經濟合作協議架構, Economic Cooperative Framework Agreement, ECFA)>의 체결 이후, 홍콩과 같은 상황이 됨. 즉, 대륙뿐만 아니라, 대만과 홍콩과의 합작을 통해서도 중국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음.



## ■ 한국영화 역량의 중국 진출의 다양한 가능성

- 중국과의 합작을 원하는 나라는 비단 한국 뿐 만이 아님. 하지만 지리적으로 가깝고, 또 문화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한국은 합작 외에도 중국 영화시장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기회는 많음.
-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배우들의 진출. 한국 배우들이 중국영화에 등장하는 일은 더 이상 큰 이슈가 되지 않고 있음.

■ 표 8 ■ 2000년 이후 한국배우의 중국영화 출연 목록

영화	감독	출연배우	비고
무극 (2005)	진개가(陈凯歌 : 천카이거)	장동건	
칠검 (2005)	서극(徐克)	김소연	
신화: 진시황릉의 비밀 ／神话(2005)	당계례(唐季礼)	김희선	
묵공(2006)	장지량(张之亮)	최시원, 안성기	
소피의 연애메뉴얼(2009)	김의맹(金依萌)	소지섭	
호우시절/成都我爱你(2009)	허진호	정우성	
검우/剑雨江湖(2010)	오우삼(吴宇森)	정우성	
전국/战国(2011)	금침(金琛)	김희선	
거액교역/巨额交易(2011)	마려문(马俪文)	한채영	제작 중
설화와 비밀의 부채(2011)	웨이인 왕	전지현	
일대종사/一代宗师	왕가위(王家卫)	송혜교	제작 중

- 한 해 제작되는 영화가 500편이 넘는 중국 영화계는 심각한 배우 기근 현상에 시달리고 있음. 인지도를 갖춘 배우는 연령대가 높고 눈에 띄는 신인은 없음. <관음산(观音山)>의 범빙빙(范冰冰), <설화와 비밀의 부채>의 이빙빙(李冰冰)처럼 30대 중반의 여배우가 고등학생을 연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함.
- 2010-2011년 새해 시즌에는 한 달 동안 갈우(葛优)가 주연한 영화 네 편이 한꺼번에 개봉하기도 함. 국민 배우라 불리는 갈우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일이자, 한 편으로 중국의 배우 기근 현상을 증명하는 일이기도 했음.
- 갈우뿐만 아니라 견자단(甄子丹), 범빙빙, 고천락(古天乐) 등의 스타들은 일 년에 적게는 3편에서 많게는 10편까지 겹치기 출연을 하고 있음. 스타를 '모시기' 위

한 개런티 역시 상상이상으로 높음. 이러한 상황은 한류의 영향으로 일정 인지도를 가진 한국배우들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최근 한국감독의 중국 진출도 본격화되고 있음. 2011년 제 14회 상해국제영화제에서 중국의 존보미디어(中博传媒)와 허진호 감독, 곽재용 감독이 전속 계약을 맺었음. 이 자리에서 존보미디어측은 한국을 대표하는 두 감독과 함께 각각 매년 한 편씩 대작영화를 제작할 예정이라 밝힘.
- 제작된 영화는 한국 혹은 중국영화가 아닌 아시아영화로써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재 허진호 감독은 프랑스 소설 원작의 <위험한 관계(危险关系)>를 제작 중에 있고, 곽재용 감독은 오구리 순, 범빙빙 등의 아시아 스타와 함께 <양귀비>를 제작 준비 중임.
- 한국 공포영화의 대가 안병기 감독 역시 중국전영그룹이 제작하는 공포영화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올해 초 인터넷영화로 제작되어 인기를 끈 후, 6월에 원선 개봉까지 성공한 영화 <남득유애(男得有爱)> 역시 북경영화학원 출신의 한국감독 한승환의 작품임.
- 기술 방면에서 한국 스태프의 참여도 활발해지고 있음. <집결호(集结号)>에서 한국 특수효과팀의 힘이 컸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음. <집결호>에서 맺은 인연으로 <대지진>의 한국의 특수분장팀 메이지가 맡았고, 박주호 또한 무술감독으로 참여함. 김희선이 출연한 <전국>은 한국의 김형구 촬영 감독이 카메라를 잡았음. 후반 작업에서 한국 업체의 진출도 눈여겨 볼만함.

| 표 9 | 중국 영화에 참여한 한국 후반 업체

업체	분야	영화	감독	
HFR	색보정	전국 외 다수		
넥스트 비주얼 스튜디오	VFX	삼국지 : 용의 눈물	이인홍	
		금위의/锦衣卫 (2010)	이인홍	
		백사전설/白蛇传说 (2011)	정소동 (程小东)	2011.9 개봉예정
		홍문연/鸿门宴 (2011)	이인홍	후반작업 중
		충렬 양가장/忠烈杨家将	우인태 (于仁泰)	촬영 중
에이지웍스	VFX	적인걸	서극	
2L	VFX	천녀유혼/倩女幽魂 (2011)	엽위신 (叶伟信)	촬영 중
		개심마법/开心魔法		
키노모티브	VFX	미래경찰/未来警察	왕정(王晶)	

- 앞서 언급한대로, 지리적, 문화적 위치에서 한국은 중국시장으로의 접근이 용이함. 중국 업계 내에서도 한국의 영화기술이 중국보다 더 좋은 퀄리티를 보장한다는 이미지가 강함.
- 분야별로 협력하여 중국 진출을 도모할 수도 있음. 중국영화에 한국 제작사가 투자를 진행하며 한국 배우를 캐스팅하게 하는 사례처럼, 특수효과와 시각효과, 혹은 특수효과와 특수분장, 비주얼 후반작업과 사운드 후반작업 등 서로 연계가 가능한 부분에서 중국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함.
- 마지막으로 다수의 중국 작품에 참여하고 있는 후반 작업 업체 넥스트 비주얼 스튜디오의 김태훈 대표의 인터뷰를 첨부함

### 3. 넥스트 비주얼 스튜디오 김태훈 대표 인터뷰 (2010. 7. 18)

Q. 어떤 계기로 중국에 진출하게 되었는지, 현재 중국과 어떤 영화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 태원엔터테인먼트가 <삼국지>를 중국과 공동제작하면서, <삼국지>의 후반 작업을 우리가 맡게 되었다. 그 때 인연이 되어 이인홍(李仁港) 감독님의 차기작인

<금위의>도 넥스트가 진행했다. 막 촬영을 끝낸 <홍문연> 까지 이인홍 감독님과 짝 같이 하고 있다. 현재 9월에 개봉하는 <백사전설>의 마무리 작업 중이고, 우인태 감독님의 <충렬 양가장>이 촬영을 앞두고 있다.

**Q . 최근 한국 후반작업 업체의 중국진출이 눈에 띄고 있다. 한국업체가 가지는 강점은 무엇인가?**

A : 한마디로 경쟁력이 있다. 미국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고, 중국보다 기술 경쟁력이 있다.

**Q. 중국 시장에 진출한 이유가 무엇인가?**

A : 물론 시장의 규모가 한국보다 크기 때문이다. 제작편수도 많고, 대작영화의 경우 버젓도 상당하다. 버젓이 클수록 우리는 새로운 기술적 시도가 가능해진다. 도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시장이다.

**Q.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는가?**

A : 향후 5년 동안은 한국업체들이 우세할 것이라 본다. 하지만 중국 영화시장의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중국인들의 눈높이도 점차 높아지기 때문에 중국의 기술 역시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다. 한국도 분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Q. 중국과의 공동 작업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A : 커뮤니케이션이다.

**Q. 통역의 문제를 말하는가?**

A : 물론 전문 인력이 부재에서 오는 언어적인 문제는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커뮤니케이션은 언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서의 문제까지 포함한다. 영화가 산업이기 이전에 문화이고,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문제가 가장 어렵다.

과거의 공동 작업이 단순한 주문제작 형식이었다면, 이제는 상대방에게 크리에이티브를 제공해야 하는 시대이다. 한국에서는 정서적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있어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발전시키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사고방식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때문에 중국 문화 대한 이해가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는 장점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유럽과의 커뮤니케이션 장벽을 100이라 했을 때, 같은

아시아권인 중국과의 장벽은 50 밖에 안된다.

**Q. 공동작업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A : 신뢰를 쌓는 것이다. 처음 <삼국지>를 작업하면서 신뢰를 쌓는 것이 제일 힘들었다. 우리가 얼마만큼을 해낼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신뢰는 흔히들 말하는 판시(关系)가 아니다. 판시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 판시가 기회를 제공할 수는 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실력이다.

**4. 북경성세화예전영투자관리유한공사(北京盛世华锐电影投资管理有限公司) 후적(侯迪) 인터뷰**

**Q. 간단한 소개를 부탁한다.**

A. 북경성세화예전영투자관리유한공사에서 투자, 제작 담당이자, 북경성세신영련발행유한공사(北京盛世新影影视发行有限公司)에서 합작을 맡고 있다. 북경성세화예전영투자관리유한공사는 투자, 제작, 배급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곳으로, 청년감독연맹(青年导演联盟)을 통해 중국의 젊은 감독을 양성,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주로 투자한 영화로 <집결호>(제작비의 10%), <화피>(제작비의 45%), <엽문>(제작비의 51%)등의 대작영화외에도 중소규모의 영화 다수를 투자, 제작해왔다. 현재 일년에 20-25편 정도의 영화를 투자, 제작, 배급하고 있다.

<엽문2(叶问2)>의 기획과 배급을 담당했고, <방불잉방(房不剩防)>에서는 기획, 제작을, <밀실지불가고인(密室之不可告人)>에서는 제작을 맡았다.

**Q. 어떤 계기를 통해 한국영화인들과 교류하게 되었나?**

A. 먼저 지인을 통해 CJ나 showbox와 같은 한국 회사들을 소개를 받았었고, 2008년에 참가한 부산국제영화제와 한국영화진흥위원회의 활동들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넓혔다.

**Q. 한국측과 주로 논의하는 분야는 무엇인가?**

A. 주로 투자, 제작, 배우, 후반작업 등이다.

**Q. 한국측과 작업하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게 되나? 한국영화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A. 촬영이나 미술, 시나리오 같은 부분에서 스태프들의 역량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Q. 한국과 작업하면서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가?**

A. 언어와 양국문화차이로 인해 영화의 진행이 다소 지연되는 점이다.

**Q. 중국영화계가 가지는 한국영화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어떤 것인가?**

A. 디테일하고, 화면이 스타일리쉬하다, 로맨스와 코미디....

개인적으로는 한국영화의 액션과 CG특수효과 부분에서도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Q. 한국이 중국과 합작시 유의해야할 점은 무엇인가?**

A. 한국이 반드시 중국과 관련된 내용들을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문화나 배경 같은 것들 말이다. 개인적으로는 한-중 합작에서 할리우드 영화 <페스트엔 퓨리어스5> 같은 영화와 같은 방법도 시도 가능하다고 본다.